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9·10호 프로젝트 선정

- 포항에 총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
- 영광에 총사업비 1,798억원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9·10호 프로젝트 선정 】

’24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아홉 번째 및 열 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각각 선정되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정부 재정 등이 조성한 펀드가 마중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선정된 두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투자 모델을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디지털·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9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용량 40MW(IT Load 32MW) 규모의 GPU 기반·수냉식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범용 연산 중심 데이터센터와 달리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하는 AI 작업에 특화된 고성능 데이터센터로, 건축 허가를 포함한 주요 인허가와 전력 확보가 완료되어 ’26년 하반기 착공, ’28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대비 저렴한 토지비용과 단층 구조 설계를 통한 하중 설계 비용 및 보강 비용 절감, 업계 최상위 수준의 전력

사용 효율(PUE* 1.25) 등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국내 선도 데이터센터 운영사로부터 총 수전용량의 50%에 해당하는 20MW 규모의 수요도 이미 확보하였다.

*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전력사용효율): 데이터센터 총 전력을 IT 장비 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을 의미

동 프로젝트 건설기간 동안 약 4,300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약 1조 2,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등과 연계한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798억원을 투입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일원에 최대 방전용량 기준 80MW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의 최대 저장용량은 480MWh로 최대 방전용량 80MW 기준으로 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은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하고,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장치이다.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25년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장기계약(15년)을 바탕으로 전력거래소의 충·방전 지시에 따라 운영될 예정으로, 건설을 위한 주요 인허가를 완료하고 '26년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26.12월 준공 후 '27년 초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 지역의 잉여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조성 현황 및 운영 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여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 SPC를 설립하여 모펀드 투자액의 최소 10배 규모(레버리지)로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4년부터 현재까지 총 8,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되어 10개 사업, 총사업비 4.4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 및 위험 분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로드쇼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협력의 장(매칭데이)을 마련하는 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4-214-3190)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journey@korea.kr)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김형균 (pangkim17@korea.kr)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	책임자	실 장	이상용 (02-787-5451)
		담당자	팀 장	성정환 (jhsung@kdb.co.kr)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의의)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로서 '24년 신규 도입

○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최소 10배 레버리지)

* '24년 및 '25년 각 3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은 각 1천억원), '26년 2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은 각 5백억원, 기타 총 5백억원)

○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PF금융방식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조단위 가능)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정치적 의사결정 등)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Positive 방식)	제한없는 사업 유형(Negative 방식)
리스크,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구조) 모·자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모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억원 규모 조성(마중물 역할) ▶ 모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자펀드	▶ 모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 결성 ▶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에 자본금, 대출금 투자(총사업비의 20% 內)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지방정부, 자펀드로 구성된 SPC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HUG 특례 보증 제공)

□ (지원대상) 펀드 조성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선정한 프로젝트*(negative 방식)

*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위험물 저장·취급,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인센티브)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각종 규제 완화,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